

# 홍남기 “韓 재정 충분… 올해 국채 발행, 계획 절반 정도”

### “경제 어려움, 소득주도성장 자체보단 구조·경기 영향 복합

### 최저임금 결정 구조 내년 바뀌야… 합리적 결정 방법 모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채 발행 역시 연초 예정됐던 규모의 절반 정도만 발행해도 충분할 것이라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 정식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당분간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재정수지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의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

비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또 올해 국채 발행 한도가 연초 28조8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세수를 고려하면 절반 정도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15조원 정도는 발행하지 않더라도 13~14조원 정도는 발행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부채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며 동의를 표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올

해 소득 지표, 경기 지표 등 여러 가지가 부진하기에 아직 본격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 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나온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지금껏 누적돼 온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답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논쟁이 많았지만,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짚으며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는 점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지급능력이나 경제 파급 영향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내년에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내년 인상률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내년 이후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재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가 확대 여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또 1기 경제팀의 성과에 대해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가 굉장히 더뎠다”고 평가하며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 성장률 경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수수료인하·금리인상에 여신업 위기… 해법은?

수수료인하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여신업계에 위기가 닥쳤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NFC결제 방식 활성화와 빅데이터 사업을 위한 규제 제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오후 여점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문 여신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카드사의 사업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증가해 카드업계에 위기가 닥쳤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카드플랫폼 강화를 위해 QR코드 방식이 아닌 NFC결제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카드사 공동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해 수익성을 장·단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편의점, 성급한 진입 사라질것 출점경쟁 아닌 품질경쟁 기대”

### 김상조,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 참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편의점 업계가 마련한 과밀화 해소 방안과 관련, “포화된 지역에서의 성급한 진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젠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 경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소속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요청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 자율규약에는 ▲신규출점 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고려 ▲희망페업시 영업위약금 감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약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지난 1989년 잠실에서 세븐일레븐이 최초로 출점한 이래 지난해 4만개를 돌파했다”며 “소자본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창업시장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급격한 성장 이면에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같은 건물 내에 여러 개의 편의점이 출점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과잉출점

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희망페업 시 영업위약금을 감면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해 “책임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는 위약금 감면으로 보다 용이하게 편의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도 충분히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각 참여사들이 규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뿐만 아니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익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규약내용을 충실히 실천한 가맹본부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규약의 실천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해 이번 자율규약의 내용이 업계에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4일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전북이미용봉사단과 공동으로 남원시 보절면 추어마을(FarmStay) 체험관에서 마을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커트, 펌, 염색 등의 미용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 고령화로 활력 잃어가는 우리 농촌 위한 사랑 나눔

### 전북농협·미용봉사단, 남원 추어마을 어르신들의 머릿손질로 훈훈한 정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추어마을(위원장 안태원)은 4일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전북이미용봉사단(단장 박보라)과 공동으로 남원시 보절면 추어마을(FarmStay) 체험관에서 마을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커트, 펌, 염색 등의 미용봉사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육성하고 있는 남원 추어팍스테이마을은 역사의 향기가 배어있는 마을로, 마을의 자랑 추어(鰍魚)는 추어탕 등 각종 보양 요리재료로 각광받는 어류 또는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미꾸라지 잡기, 손 모내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봄철 철쭉이 한창일 때는

운풍 붉은빛으로 물들어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 있다. 안태원 추어팍스테이마을 위원장은 “농촌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챙기는 봉사단이 있어 든든하다”며,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촌을 위한 사랑 나눔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韓, 금리인상 마무리 내년 추가 인상 없을 것”

메리츠증권증권은 4일 한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에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25bp(1bp=0.01%)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약 1년여 만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의 금리인상 기대도 높았다”며 “다만 2017년 11월 인상 이후 1년 만인 올해 11월 겨우 한차례 인상을 단행하고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풀림, 내외금리차 역전 같은 금융안정 저해 요인이 유효한데도 추가 금리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기여건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2.8%보다 절대성장률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올해보다도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선행지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